

'익산 문화유산 야행' 최우수 영예

국가유산청 주관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2년 연속 선정

익산시가 국가유산 활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역사문화도시의 명성을 이어간다.

시는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을 개최하고, 문화유산 야행 부문에서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 중 높은 평가 점수를 얻은 3위를 우수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익산 문화유산 야행'은 2018년 첫 선을 보인 이후 2019년과 2023년에도 우수사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2023~2024년 선정으로 3년 연속 우수사업 선정 지방자치단체에 수여되는 '명예의 전당' 등극도 한걸음 가까워졌다. '2024 익산 문화유산 야행'은 지난 4월 19~21일 백제왕궁(왕궁이유적)에서 치러졌으며, 3일 간 방문객 3만여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문화유산 야행은 '백제왕궁연회'라는 부제를 달고 지난해 전국 우수 야행에 선정된 것과 다수의 유산 발굴 성과를 축하하는 연회로 진행됐다. 유산 분야 성과를 흥미롭게 풀어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낸 개막식을 시작으로,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체험·공연 행사와 백제왕궁을 가득 채운 야간 조경은 방문객의 큰 호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국가유산활용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명품도시 익산의 위상을 높이게 된 것이 큰 성과"라며 "가치있는 익산의 문화유산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영화제 기술 전문가 14명 양성

전주국제영화제, 스크리닝·영사 매니저 양성 교육 수료식 가져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지난 12월 3일부터 3주간 진행한 '2024 영화제 스크리닝 및 영사 매니저 양성 교육'이 18일 수료식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영화제 스크리닝 및 영사 매니저 양성 교육'은 전주국제영화제가 2022년부터 3년째 실시해 온 지역 내 영화 상영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는 양성 과정이다. 선발된 수강생들은 무료로 교육을 제공받으며, 전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스크리닝 매니저, 영사 매니저 선발 시 가산점을 주어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

수료생들은 영상·오디오 규격 등 디지털 시네마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영화 상영 시물레

이션과 현장 체험까지, 6회에 걸친 교육 기간 동안 영화제 기술 파트 업무 전반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특히 마지막 주 차에는 영화제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상영 준비와 스크리닝 실습을 진행하며 실무 감각을 익혔다.

이번 교육에는 영화 전공자부터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자원자까지 다양한 배경의 수강생들이 참여했다. 한 수료생은 "교육이 체계적이었고 영사와 상영 시스템 전반에 관한 과정을 이해하고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수료생은 "영화제 일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영화를 진심으로 대하는 방법을 하나 더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남겼다.



전주국제영화제 장성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영화제 전문인력양성에 힘쓰며,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통해 관객들에게 더 나은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수강생들에게 영화제 운영의 실무 경험을 쌓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들이 향후 한국 영화 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025년 2월 중에 스크리닝 및 영사 매니저를 공개 모집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박물관은 '2024년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박물관'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어촌

및 문화소외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박물관을 직접 찾아오지 않고도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학예연구사가 직접 들려주는 우리 지역 역사 이야기 고고학, 인장, 민화 수업으로 진행되어 토기복원 및 인장 만들기·민화 예코백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2024년 찾아가는 박물관'은 총 40회에 걸쳐 12개교 910명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재훈 기자

'한 상에 담긴 전주 집밥' 전시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음식 한 상차림 12종 개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하 전당)이 전주의 풍부한 식재료와 손맛을 담은 '전주음식 한 상차림' 전시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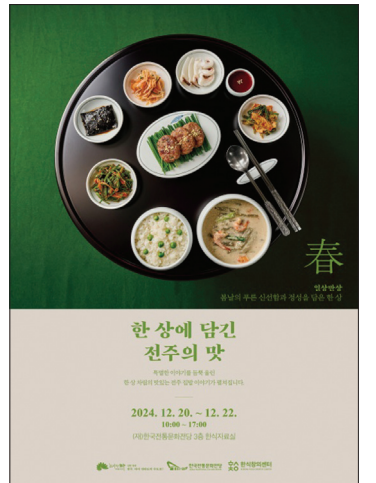
전당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음식 문화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 상품화를 시키고자 '집밥'을 주제로 자료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밥상 12종을 개발했다.

전당 3층 한식자료실에서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사계절의 특징을 담은 봄(임상반상), 여름(늘상반상), 가을(노을반상), 겨울(운기반상)과 함께 △전주 10미를 활용한 전주 비건 밥상 △간장양념으로 맛을 낸 전주비빔밥 △연의 향기를 담은 연향 밥상 △주안상과 다과상 등 전주의 맛을 담은 상차림을 선보인다.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는 따뜻한 차와 다과를 제공해 전주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식문화팀(063-281-1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전당은 19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음식 한상 차림으로 개발된 상차림 12종을 소개하는 보고회를 진행했다.

/김재훈 기자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이번 전시는 전주 지역의 집밥 문화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주 밥상이 우수한 전주의 음식문화를 알리는 매개체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운영위원회 개최

사업계획·문학예술인회관 건립상황 보고 후 발전방향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문학관의 2024년 운영 실적과 2025년 계획을 공유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운영위원회'를 도청 2층 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백봉기 관장이 2024년 한 해 동안의 운영 실적 및 2025년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전북자치도에서는 현재 건립 중인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이후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됐다.

백봉기 관장은 2025년 사업계획 보고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계기로 내년에는 문학관이 신인작가 발굴 및 홍보, 창작 활동과 상호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문학 활동의 구심 역할을 하는 사업들을 수행하여 전북 문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했다.

이번 회의는 문학예술인회관 건립의 해를 맞이하여 문학관의 향후 운영의 방향성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위원들은 문학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문학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학관은 더욱 혁신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문학관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여, 도민들이 문학을 통해 더 깊이 소통하고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의를 마무리하며 참석 위원들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같은 위대한 결실이, 2036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손피켓 퍼포먼스도 실시했다.

/이만호 기자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센스는 함께!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우리 같이 할래요?

난방 할 때는
문을 꼭 닫기!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도 준수하기!

안쓰는 제품
전원 끄기!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센스

당신의 에너지센스!

온도주의